신약개론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제 1 장 침묵시대 _ 5
제 2 장 예수님시대 _34
제 3 장 성령시대 _ 61
제 4 장 천국시대 _ 85

1 장

/

침묵
시대

제 1 장 침묵시대

1. 영적대각성 운동의 소멸

가. 포로 귀환 때(BC 526년)로부터 시작해서 말가기 때(BC 400년)까지 영적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 1차 포로귀환: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하 36:23).

2) 1차 포로귀환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귀환 후 즉시 성전재건을 시작했으나 방해세력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후에 20년 만에(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나. 포로 귀환 2차 때부터 영적대각성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 그 후 58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

[대하 36: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라가 귀환했습니다.

2)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 그 후 약 13년 후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52일만에 완공시켰습니다.

4) 느헤미야는 에스더, 학개, 스가랴와 함께 영적 대 각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5)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6)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지속하길 원하셨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나라의 지도자인 두령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미 3:11).

7)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암흑시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간은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 영적 암흑시대의 상태

1) 영적 암흑시대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만남이 두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2) 영적 암흑시대는 어둠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는 영적 암흑이며 이는 곧 어둠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3)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도 영적 암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암흑에서 벗어나기 위해 빛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3대 영적암흑시대

가. 이집트에서의 400년 암흑시대

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대략 400년 동안 영적 암흑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출 12:40-41).

2) BC 1461년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3) 모세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4) 성막을 통한 제사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출 12: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사백삼십 년이라
[출 12:41] 사백삼십 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나. 가나안에서의 400년간 암흑시대

1)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박해를 대략 40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빛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

문입니다.

2) 여호수아가 죽은 때(BC 1390년)부터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된 때(BC 1050년)까지 대략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3)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를 종결시켰습니다.

4) 사무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 포로 귀환 후 400년간 암흑시대

1)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영

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부패한 백성의 지도자들로 인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시들고 말았습니다(미 3:11).

2) 이러한 영적 암흑 시대는 예수님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3) 예수님은 빛이십니다(요 1:4).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요 1:5). 도리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요 1:9-11).

4) 이스라엘 백성이 빛되신 주님을 거부한 결과 무려 2000년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빼앗겼으며 저들의 재산과 집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5) 하나님은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두실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빛되신 주님을 거부할지라도 언젠가는 저들이 빛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롬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요 1: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롬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11:25-26)

3대 영적암흑시대?

영적암흑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01 이집트에서의 400년 암흑시대

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대략 400년 동안 영적 암흑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출 12:40-41).
2) BC 1461년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3) 모세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4) 성막을 통한 제사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02 가나안에서의 400년간 암흑시대

1)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박해를 대략 40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2) 여호수아가 죽은 때(BC 1390년)부터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된 때(BC 1050년)까지 대략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3)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를 종결시켰습니다.
4) 사무엘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5)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03 포로 귀환 후 400년간 암흑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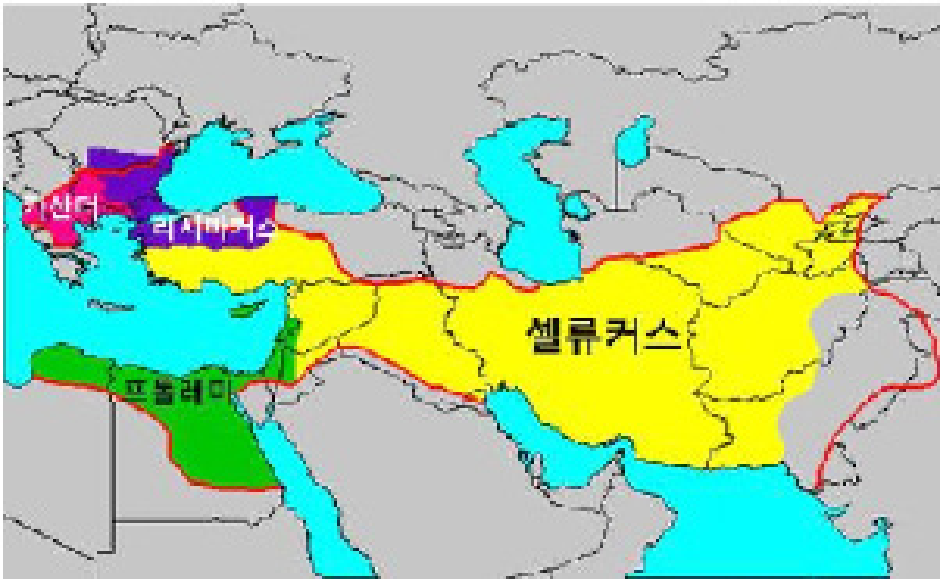
1)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부패한 백성의 지도자들로 인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시들고 말았습니다(미 3:11).
2) 이러한 영적 암흑 시대는 예수님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3) 이스라엘 백성이 빛되신 주님을 거부한 결과 무려 2000년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 하나님은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두실 것입니다(롬 11:25-26).

3. 이스라엘의 주변세력

가. 앗수르제국 – 바벨론제국(BC 612) – 바사제국(BC 539) – 헬라제국(BC 333 알렉산더대왕)

나. 헬라제국(BC 333-323): 알렉산더대왕이 죽은 후 헬라제국은 4 장군에 의해 나눠졌다.

1) 카산더(마게도냐, 헬라), 리시마쿠스(동북부의 트리키아), 프톨레미(이집트), 셀류코스(시리아)



2) 프톨레미(애굽)의 유대통치(BC 323-198)

3) 셀류코스(시리아)의 유대통치(BC 198-165)

다. 하스몬 왕조(BC 165-66):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BC 66~AD 70)

4. 침묵기간:

핍박과 혼란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야를 기다렸다. 이 400년의 침묵기간은 다음 세가지 면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가. 언어의 통일: 헬라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행정의 통일: 로마제국의 통치로 인해 국경이 없어졌으며 발달된 도로로 인한 여행이 용히해졌다.

다. 영적인 준비: 로마의 핍박을 통해 메시야를 더 바랄 수 있게 되었다.

5. 마카베오 왕국 영토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에 유다는 바사의 통치 하에서와 같이 알렉산더의 통치 하에서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냈다. 알렉산더 사후에는 북쪽 수리아(셀류쿠스)와 남쪽 애굽(프톨레미) 사이의 분쟁 지대로 1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지배 되었으며 BC 198년에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3세(BC 223~187년)에 의해 수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다는 헬라문화의 동화 정책으로 유다의 독특한 신앙 생활이 유린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자 이와 타협하는 헬라 주의자와 이를 반대하는 유다주의자가 일어났다.

그는 유대 민족의 종교적인 생활까지를 규제하여서 완전히 헬레니즘화하여 강력한 국가를 소유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화폐에 '신은 왕 안디오쿠스를 승리자로 명시한다'고 새겨서 그

의 신성을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의 정책은 헬라적 삶의 양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압력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헬라화하려는 그의 행동은 오히려 반항정신을 일깨웠고 폭동을 빚어냈습니다. 반대 그룹은 유대 관습과 종교를 보존하려는 자들로서 하시딤(Hasidim)(경건한 자들)이라고 알려졌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을 완전히 헬라화하겠다고 마음먹고 법령으로 유대주의 관습을 금지시켰습니다. 마침내 BC 168년 12월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약탈하고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제거했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했고, 성전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약탈하고, 대제사장 우니아를 죽이고 유대인 약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스룹바벨에 의해 새로 지어진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딘(Modin)이란 작은 마을에서 제사장 맛다디아스가 반기를 들고 게릴라 투쟁을 시

작하였고 뒤를 이어 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계속 투쟁하였으며 BC 161년에는 신흥 로마와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계속 투쟁을 전개하던 중 이듬해에 죽었다. 마카베오 사후 그의 동생 요나단이 혁명군의 지휘관이 되어 투쟁하다가 수리아의 장군에 잡혀 죽고 맛다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 드디어 BC142년 독립을 쟁취하였다. (마카베오상 12:48-52) 그러나 독립을 쟁취한 시몬은 BC134년 사위인 톨레미에게 살해되고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이 되어 통치하였다. (BC 134~104년)

BC 104년 요한 힐카누스(John Hyracanus, BC 135-BC 104)가 죽은 후 유다는 세속에 흐르고 내부 권력 싸움에 빠져 수리아에 왔던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 BC63년 예루살렘은 장기간포위 당했으며 결국 BC63년 아리스토 불루스 2세 때 로마에게 넘어갔다. 이로써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한 후 약 445년만에 누렸던 유다의 독립은 100여년의 짧은 기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신생 이스라엘은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세울 때까지 약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다.

하스몬왕조 & 헤롯대왕 연대표

하스몬왕조

헤롯가문

맛다디아

모딘 마을의 제사장, 셀류쿠스왕조 대항, 다섯아들 있음

마카베오

셋째아들(166–160)

맛다디아의 셋째아들로 본명은 유다, 쇠망치란 별명

요나단

막내(다섯째)아들(160–143)

맛다디아의 막내 아들로 형의 대업을 이어받음, 대제사장 등극함

시몬

둘째아들(143–134)

맛다디아의 둘째아들로 마카베오혁명시기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시작

요한 힐카누스 I

막내아들(134–104)

시몬의 막내아들, 사위(볼레미)에 의해 시몬의 다른 두 아들 죽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 힐카누스1세가 왕으로 승계

아리스토 불루스 I

큰아들(104–103)

힐카누스1세는 부인(살로메)이 왕이 되길 원했지만, 그의 큰아들(아리스토 불르스1세)이 세명의 동생을 감금후 왕이 됨

알렉산더 얀네우스

둘째아들(103–76)

불루스1세가 죽자 살로메는 둘째아들 얀네우스를 왕으로 세움

알렉산드라 살로메

힐카누스와 얀네우스의 아내(76–67)

살로메는 아들 얀네우스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 이후 여왕이 되었다.

아리스토 불루스II

차남(67–63)

살로메 죽음 이후 불루스2세가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사두개파 승리)

요한 힐카누스II

장남(63–40)

억울한 장남 힐카누스2세는 안티파텔(이두메족장,헤롯대왕의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 로마 황제 폼페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안티파텔 후원 로마 폼페이 입성

로마의 속국이 됨(63~70)

힐카누스2세의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폼페이장군은 예루살렘 입성하였고 이스라엘 통치권을 쥔다

맛다디아 안티고누스

아리스토불루스II의 아들(40–37)

63년 이후부터는 더이상 하스몬왕조가 아니고 로마의 속국으로써의 통치권을 갖는다. 아리스토불르스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로마에 의해 왕의로 임명된다.

헤롯대왕

아들(37–4)

타고난 정치적인 재능으로 로마의 도움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헤롯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 통치

아들(BC4–AD6)

통치후 민란을 수습하지 못해 바로 퇴임하게 된다

헤롯 안디바

갈릴리,베레아 통치

아들(BC4–AD39)

세례요한을 죽인 왕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언급된 왕이다

헤롯 빌립II

바타네아와 그 주위지역 통치

아들(BC4–AD33)

헤롯대왕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 바타네아와 드라고닛, 가우라닛, 얌니아 지역의 분봉왕을 지냈다.

헤롯 아그립바I

이스라엘 전지역 통치

헤롯의 손자(AD39–44)

헤롯대왕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한다

바사제국에서 로마제국까지	이스라엘에서의 통치내용
고레스(538-530)	세스바살 인솔하에 귀환, 제단이 세우짐, 성전공사착수(여호수아, 스룹바벨)
캄비세스(530-522)	성전공사 중단(사마리아인과의 갈등)
다리오 1세(522-486)	성전공사 재개(520년, 학개, 스가랴 합세). 성전 봉헌(515년)
아닥사스다 1세(465-424)	에스라(457). 느헤미야(444)의 귀환, 성곽 건축, 율법 연구
알렐산더 대왕(333-323)	알렉산더대왕의 바사왕국 점령, 알렉산더 죽은후 4장군에 의해 나라가 분리됨
톨레미왕조의 팔레스틴 통치(303-197)	매우 관대했고 문화통치를 해옴, 세계의 문화유산지인 알렉산드리아를 세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함(70인 성경)
셀류코스 왕조의 팔레스틴 통치(197-164)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가장 악랄하게 유대교를 탄압함(성전출입금지, 안식일 못키키게 함, 율법책 불사름,성전모독(제우스신상, 돼지제물), 성직을 매매함
	참다못한 유대인들이 셀류코스 왕조에 저항함(마타비아스➔3째 아들인 유다➔동생 시몬 인도). 셀류코스 왕조가 멸망됨(BC164). 하스몬왕조를 세움(조상이름을 땀)
시몬(142-134)	유다는 신흥로마와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벌이다 죽고, 그의 동생 시몬이 BC142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하스몬 왕조를 세움, 하스몬왕조는 BC67년까지 지속됨.
요한 힐카누스 1세(134-104)	시몬이 사위(톨레미)에 의해 살해된 후, 그 뒤를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1세가 계승함.
아리스토 블루스 1세(104-103)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 블루스가 자기 어머니를 몰아내고 세명의 동생들을 감금시킴. 형제인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왕이 됨. 그는 최초로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103-76)	아리스토 블루스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감옥에 갇혔던 형제들을 풀어주고 첫째 형제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내가 됨.
알렉산드라 살로매(76-67)	야네우스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살로메에 의해서 9년간 다르려졌다
아리스토 블루스 2세(67-63)	살로매의 차자인 아리스토 블루스 2세가 장남 힐카누스 2세를 몰아냄
폼에이 시리아 정복후 예루살렘 입성(62)	힐카누스 2세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유대가 로마 속국이 되고 말았다
쥴이어스 시저	힐카누스 2세와 안티파터스(헤롯대왕의 아버지)가 쥴리어스 시저를 지지함
	쥴리어스 시저가 승리한 후 이들은 유대의 분봉왕과 태수가 됨
	안티파터스는 자기의 두 아들 중 파사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통치하게 하였다.
쥴리어스 시저 암살당함(44) 옥타비아누스 승리(아토니우스 죽음)	옥타비아누스는 쥴리어스 시저를 지지하고 자기를 반대한 힐카누스 2세와 안티파터스를 제거함. 자기를 지지한 안티고누스 2세를 왕으로 세움
옥타비아누스 승리(31)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자 헤롯은 로마로 찾아가 속죄하였고(안토니우스를 지지했기 때문)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유대왕으로 삼음
헤롯대왕(37-주후 4년)	하스모니안(하스몬왕가) 통치가 완전히 종결됨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 왕족인 아내와 장모, 동서, 그리고 힐카누스 2세까지 처형시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을 건출하였으며(주전 20-주후63년)
	자기의 아들을 모두 죽임(주전 7년). 주전 4년에 여리고에서 죽음을 당함
	아켈라오는 팔레스틴의 남쪽지역, 빌립은 북동쪽,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뢰아 지방을 다스림
아켈라오(팔레스타인 남쪽)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을 9년동안 폭정으로 다스림. 주후 6년에 아구스도 황제는 그를 파면함.
빌립(북동쪽 지역)	팔레스타인 북동쪽 지역을 다스렸다. 헤롯의 아들 가운데 가장 온순한사람이었다.

시대 구분		연 대	주 요 사 건
바사시대		B.C. 404-331	- 알렉산더 대제에게 함락당함.
헬라 시대	알렉산더	336-323	- 알렉산더 사후 4 장군이 제국을 분할 점령함. - 숱한 헬라 잔존 세력들 간의 정변끝에 B.C.201 년 셀류크스 왕조의 안티오크스 3 세가 팔레스틴을 차지함 - 안티오크스 4 세의 성전 모독 및 약탈.
	프톨레미 왕조	301-201	
	셀류크스 왕조	198-167	
독립유다 시대	마카비 혁명	166-143	- 마카비 가문이 주도한 헬라화 반대 혁명 성공과 성전 재복원 - 로마의 유대 독립권 인정 - 다윗 시대의 영토 회복 - 바리새인의 대 반란
	하스몬 왕조	142-67	
로마시대		B.C. 63-A.D. 476	- 로마 장군 폼페이의 예루살렘 점령. - 이두매 출신 헤롯 가문의 유대 지배 시작. - 로마의 통치는 A.D.70 년 예루살렘 함, A.D.130 년 경의 전 유대인 강제 추방 정책이 실시된 후 제국 말기까지 계속됨.

6. 이스라엘 민족의 분리

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리됨

1) 북왕국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BC 722) 대략 25000명이 포로로 끌려 갔다. 그리고 앗수르 통치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혼합종교화 되고 말았다. 이 일

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2) 고레스 칙령에 의해 남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BC 520-515)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재건을 간섭하면서 유대인을 방해하였다. 유대인들이 성전재건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합쳐 또 다시 바사국에 도전을 할 것을 두려워했기에 방해를 한 것이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3) 바사국의 다리오 왕(바사국의 마지막 왕)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산발랏이 오게 되었다. 대제사장의 동생 므낫세가 산발랏의 딸(나카소)과 정략결혼을 하였는데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에 백성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산발랏은 므낫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므낫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

게 되었다.

4)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명의 부하장군에 의해 나라가 분리되었는데,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던 셀류큐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기원전 168년). 그는 성전을 훼파하고 각종 성물을 훔치고 노략했으며 성전을 파괴하고, 안식일 제도를 폐지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며, 할례를 금지하는 등 이스라엘 신앙을 파괴하였고 누구든지 불복종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으면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것이 후회할 정도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비열한 행위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양립

1) 하스몬 왕조가 생김으로 인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립되기 시작했다.

2) 마카비 혁명 기간 동인에 주로 바리새파가 마카비 혁명에 동조했으나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두개파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되면서 두 종파의 대립이 극도화되었다.

3) 맛다디아에 의해 시작된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반항운동이 세력이 커짐에 따라 마카비 혁명으로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시몬(맛다디아의 둘째 아들) 때에는 하스몬 왕조로 부상하게 되었다.

4) 맛다디아가 처음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 반항운동을 펼친 것은 종교적인 치욕을 극복하기 위함이었으나, 마카비 혁명을 거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질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처

음에는 바리새파가 동조했으나 결국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다보니 사두개파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5) 결국 하스몬 왕조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일에 일조하였다.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의 분리:

1) 유대인: 예루살렘

2) 사마리아인: 그리심산(요 4:20)

7. 이스라엘의 정치적 당파들: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이 기간 중에 두드러진 정치적 세력이 있다면 다음 셋이었다.

[요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가. 마카비안: 셀류커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으로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되어 '마카비'(=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아들 '유다'로 이어졌다. 결국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 헌당할 수 있었

	계층	특징 및 역할
총독부	총독	로마의 기사계급에 속한 관리로서 유대에서 군사, 사법 최고 권위자이며 특별히 군사통솔권, 재판권, 세금징수권을 장악했다.
	행정관료	총독은 일반행정을 보좌하는 자들로 부집정관, 각급 행정지역의 장들인 읍장 등을 거느리고 있었다.
	군지휘관	총독의 지휘하에 식민지 유대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던 군대로서 대략 6천명으로 구성된 군단이 있었다. 이 군단은 군단장, 천부장, 백부장 등에 의해 지휘되었다.
헤롯왕가	헤롯가	로마제국을 대신해서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이방의 이두매 왕가로서 형식상으로는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다.
	헤롯당	헤롯가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가리킨다. 본질상 정치적 집단은 아니지만 헤롯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성전	대제사장	성전제사를 관장하는 최고 높은 지위의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산헤드린의 의장직을 맡았다. 로마정부의 강력한 지지하에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다.
	수석 제사장들	성전의 봉헌제물과 재정을 주관하는 권력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일반 제사장들	24반열로 구성되어 매년 두번 일주일씩 희생제사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총 16,000명에 달했다. 이들은 개별적인 직업도 가졌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재판기관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지방 공회원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치리하는 지방공회에는 7-23명에 이르는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원들이 있었다.
	세리	산헤드린은 로마총독부로부터 조세징수를 위탁받아 집행했는데 세리란 세금징수원을 고용했다.
회당	회당장	회당의 우두머리였으며 집회인도, 회당건물유지, 보존, 운용의 책임을 맡았다. 누구든지 율법(토라)낭독이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핫잔(Hazzan)	회당의 서열 2위로서 종교회의의 인도자 역할을 하며 회당장의 조수로서 제반직무를 수행했다. 기도문을 암송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맡았다.
	랍비	랍비학교를 졸업한 자들로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의 난해한 문제를 해석하고 가르쳤다. 또한 평상시에는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고, 이 때를 기념하여 '하누카'(=수전절)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다.

나. 열심당: 주로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를 하며 투쟁하던 그룹들이다. 이들은 '셀롯인', '갈릴리 사람'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시카리(sicarii: 자객)'는 열심당 가운데 특별한 집단이었다.

다. 헤롯당: 유대지역 분봉왕인 에돔사람 헤롯의 가문, 특히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요, 실리주의자들이었다. 종종 사두개인들과 동일시 되기도 했다.

8. 이스라엘의 종교적 당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엣세네파

가. 사두개파: 정말 개와 같은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사독'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마카비안의 변질

된 후예인 '하스몬'왕가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주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인 당파였다.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마 22:23).

[마 22: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나. 바리새파: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하스몬 왕가가 세운 대제사장을 반대했으며, 평민중심이었고 경건주의자들이었다. 특히 부활에 대한 신학적 견해에 있어서는 사두개파와 정반대였다. 일명 '백성의 선생'으로 불리었으며(요 3:9-10),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눅 16:14).

[요 3: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 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눅 16: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 엣세네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하시디안)들로 광야에 가서 집단생활을 하던 무리들이었다. 세례요한이 이 엣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사해사본'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인류에게 남겨 주었다. 이것 외에는 그 당

	기원	주요신학	특징	장점	단점
바리새파	◗에스라시대부터 존재했던 하시딤(Hassidim)이라 일컬어진 경건한 무리들로부터 기원전 2세기경 파생했다 ◗지금까지 현존해 있는 당파이다	◗에스라를 모세 다음가는 창시자로 존중한다 ◗모세 율법과 그것을 해석한 자신들의 전승도 정경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강조한다 ◗예정론, 부활사상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기에 백성들이 존경함 ●형식주의에 치우쳤기에 예수님의 질책을 받음 ●메시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종교,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함	◗율법을 열성적으로 수호함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함 ◗율법연구에 전념함	◗자신들의 전통만을 고집함 ◗율법의 내면보다 외적인 면만을 강조함
사두개파	◗솔로몬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됨 ◗하스모니안 왕조때 확실히 드러남 ◗예루살렘 멸망(AD70)과 함께 사라짐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함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부정함 ◗종교적인 의식만을 강조함 ◗부활과 천사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함	●주로 귀족층이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직을 독점함 ●폐쇄적인 보수집단으로 백성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됨 ●현실적인 삶만을 강조하고 인생의 전부로 여김	◗없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극단적인 현실추구로 도덕성 상실함 ◗인본주의적 사고로 율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함
엣세네파	◗바리새인의 분파였는데 갈라짐 ◗이방 시리아왕조에 대항하여 개인의 은둔과 신비사상을 표방하여 조직된 공동체임 ◗세례요한도 이 분파의 한 사람으로 추정됨	◗기본신학은 바리새파와 유사함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율법 자체만을 존중함 ◗내세와 영생을 믿음	●철저한 금욕생활을 함 ●각종 의식상의 정결규례에 엄격함 ●사유재산을 내놓고 함께 공동생활을 함 ●독신주의를 장려함 ●운명론적인 경향이 있음 ●사해 사본 등의 귀중한 자료를 남김	◗경건생활 ◗율법연구에 전념함 ◗겸손과 사랑의 공동생활을 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했음 ◗노예제도를 부인함	◗사회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함 ◗극단적인 신비주의임
열심당	◗갈릴리 사람 유다로부터 시작된 로마제국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BC6년) 급진적인 애국 단체 ◗마사다 전투(AD7년)때 멸망함	◗바리새파와 엣세네파의 기본 사상과 유사함 ◗선민사상(종교 민족주의)이 강함	●로마를 대적한 극단적인 민족주의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여김 ●다른 분파들로부터 독립된 당파 ●메시야 사상을 가지고 있음	◗열성적인 충성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	◗맹목적인 충성과 헌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야를 고대함

다니엘서 2-7-8장 평행비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금 바벨론제국 (BC626-539)	사자 바벨론	
은 메대/바사제국 (BC539-331)	곰 메대-바사	숫양 메대-바사
놋 헬라제국 (BC331-63)	표범 헬라	숫염소 헬라 작은뿔 시리아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상징
철 로마제국 (BC63-AD476 서로마) (BC63-AD1453 동로마)	괴물 로마	
철/진흙 열국시대 (AD476-세상끝) 적그리스도 출현	열뿔 열국시대 한뿔 적그리스도	
돌 하나님나라 (세상끝-영원)	천국 주님나라	성전정화 주님의 개입 때에 성전정화 이뤄짐

시에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종파였다.

9. 다니엘서를 통한 세계정세 파악

가. 짐승의 의미

1)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의 순서는 가장 먼저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곰'이고 세번째는 '표범'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언급된 짐승은 '철과 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단 7:4-6).

- 성경학자들은 '사자'로 표현될만한 나라를 '바벨론제국'이라 말하고 있으며 '곰'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바사제국'이며 '표범'으로 표현되는 나라는 '헬라제국'이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철과 같은 짐승'은 '로마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짐승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이 세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상이 창조된 때부터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영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성경학자들의 생각처럼 각각의 짐승이 대표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고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짐승들의 활동은 그렇게 대표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 퍼져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짐승의 활동

1) 짐승은 이처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어느 특정한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의 악이 지배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짐승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제국'과 '바사제국', '헬라제국', 그리고 '로마제국'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언급된 4개의 제국 외에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동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제국들에서도 짐승의 흔적은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대한 생각을 보다 폭 넓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짐승

1)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과 같음을 보았습니다(계 13:2).

2) 사도요한이 보았던 세 짐승은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과 같습니다.

[계 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다니엘 역시 사도요한처럼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 환상을 보았습니다(단 7:4-6).

4) 다니엘과 사도요한이 바라봤던 짐승들은 모두 '짐승'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 짐승은 '사자'처럼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 또한 짐승은 '곰'처럼 그 힘과 능력이 강할 것이며 '표범'처럼 그 무자비함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5) 사도요한은 짐승의 모습이 3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짐승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 다니엘은 네 가지 짐승을 설명할 때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짐승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와 다니엘이 언급한 짐승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 사도요한은 짐승이 어떠한 특성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짐승들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것이지만 다니엘은 짐승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시대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단 7:7-8).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2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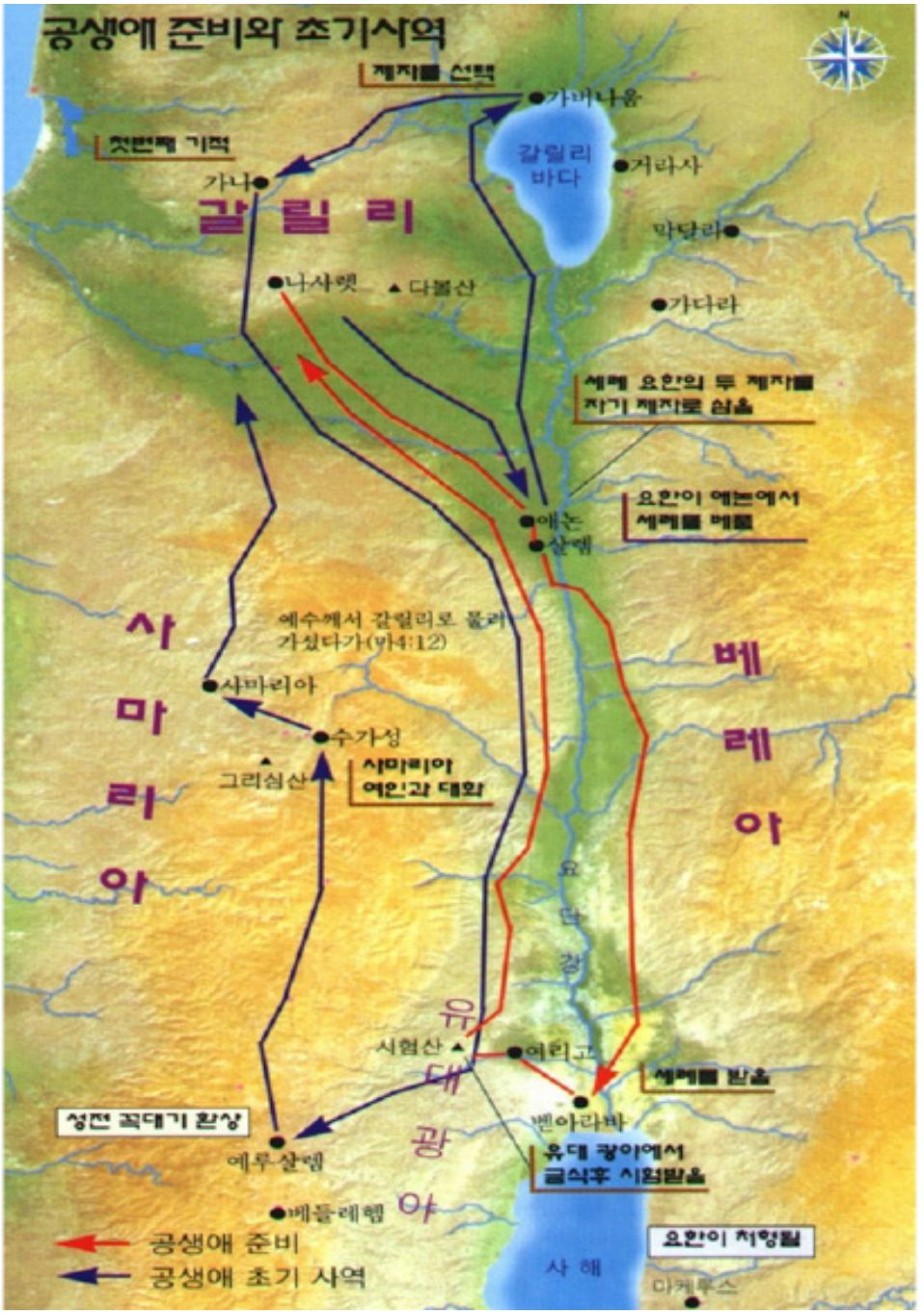
예수님

시대

제 2 장 예수님 시대

1. 사복음서 구조

주제 ＼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이미지 계 4 장, 겔 1 장	사자(첫째 생물)	소(둘째 생물)	인자(세째 생물)	독수리(네째 생물)
예수님사역	왕으로 오심	종으로 오심	사람으로 오심	성자로 오심
대상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온 세상 사람
성격	예언적(계시적)	실제적(현실적)	역사적(사실적)	영적
공통내용비율	58%	93%	41%	8%
주요시제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신학적강조점	새율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광
핵심단어	이루어진(15 회사용)	곧(40 회 사용)	인자(26 회사용)	믿음(98 회사용)
저자직업	세리	선교사	의사	어부
주요문체	설교	영웅전기	역사서	교리서
저자강조	예수님 설교	예수님 기적	예수님 비유	예수님 교리
기록연대	A.D. 70 년경	A.D. 70 년경	A.D. 70 년경	A.D. 90 년경


공생애 준비와 초기사역
제자를 선택
가버나움
첫번째 기적
가나
갈릴리 바다
거라사
갈 릴 리
막달라
나사렛
다볼산
가다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자기 제자로 삼음
요한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풂
애논
살렘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마4:12)
사 마 리 아
베 레 아
사마리아
수가성
그리심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요 단 강
유 대 광 야
시혐산
여리고
세례를 받음
벧아라바
성전 꼭대기 환상
예루살렘
유대 광야에서 금식후 시험받음
베들레헴
요한이 처형됨
사 해
마케루스
공생애 준비
공생애 초기 사역

2. 예수님의 핵심 사역

가. 3대 사역

1)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 4:23).

- '가르치다'는 헬라어 〈디다스코〉입니다. 이 말은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 〈디다스코〉 단어는 '배우다', '가르침을 받다'라는 헬라어 〈다오〉에서 왔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경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모세오경〈토라〉'를 암송하게 합니다.
- 예수님은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식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있는 자와 같아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막 1:22).
- 예수님의 주요 설교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눅 4:18-19).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는 50년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압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심이고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심입니다(레 25:8-10).

2)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마 4:23).
   -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는 200여 개의 도시와 마을로 구성이 되

[막 1:22]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눅 4: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레 25: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 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레 25: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레 25: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도시들에 대해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마 11:20-24).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도는 필수 사항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심을 크게 기뻐하십니다(고전 1:21).
-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행 20:24).

3)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마 4:23).

- '고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테라퓨오〉입니다. 이 말은 '병을 고치다', '치유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치유

[마 11: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마 11:21]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 11: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 11: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마 11: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되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테라피'라는 단어는 〈테라퓨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테라피'는 육체와 영혼에 걸쳐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 예수님은 육신의 병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현대 의학은 육신의 질병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출 15:26).
- 〈라파〉라는 단어는 '치유하다'라는 뜻 외에 '수선하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헝겊조각을 덮거나 꿰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수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은 조각난 우리 인생의 상처들을 수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너진 집을 회복시켜 주시며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난 가정과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 우리 주님은 상처입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말 4:2)는 말은 직역하면 '날개 안에 있는 치유(healing in its wings)'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날개로 품듯이 상처를 품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나. <u>주요 핵심 말씀</u>

1) 회개하라

-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마 4:17).
- '회개'는 천국 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사람을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눅 15:7).

- 베드로도 가장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2:38).

2)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마 4:17).
-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행 7:55).
- 예수님은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눅 10:8).
-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행 7: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리라(마 5:20).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 ...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저보다 크니라(마 11:11).
*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마 13:44).
*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마 16:19).
* ...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마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 11:12]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8: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 19:23).

*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마 25:1).

3)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셨습니다(마 5:3-12).
-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천국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마 19: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 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 5: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 나를 따르라

- 예수님은 부친을 장사지내야 하는 자를 제자 삼으시고 저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명하셨습니다(마 8:21-22).

[마 8:21]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 8: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 불법을 자행하는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에게도 "나를 좇아라" 명하셨습니다(마 9:9).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좇았습니다. '일어나다'라는 헬라어는 〈아니스테미〉인데 이 말은 모든 환경을 벗어버리고 뛰쳐 나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 9: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좇으라"고 명하셨습니다(마 19:20-22).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으므로 근심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말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요 12:26).
-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요 21:19).
-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요 21:22).

5)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요 1:29).
-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마 19:20]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마 19: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 12: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 21: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때 제물로 사용되었던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요 3:16).
- 예수님은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눅 22:14-20).
- 성막의 진설병에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진설병에는 떡과 포도주가 진설되었습니다. '진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성찬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눅 22: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눅 22: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눅 22: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눅 22:17]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눅 22: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눅 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연합함이 이뤄지길 믿으며 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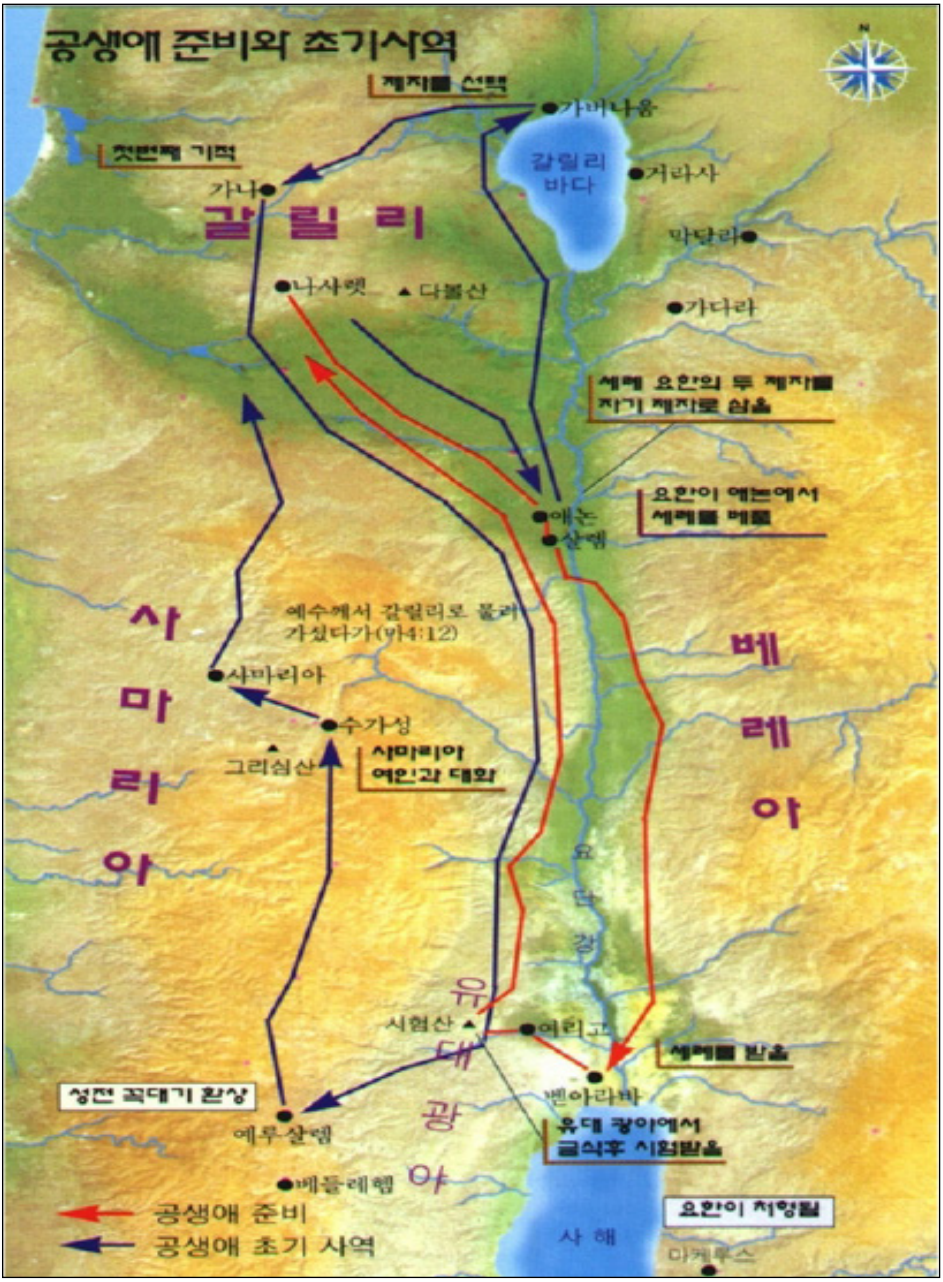
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25-26).
-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29).
-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두개인을 향해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2:23-30).

[요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 22: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마 22: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마 22: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마 22: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마 22: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마 22:28]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마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 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공생애 준비와 초기사역
제자를 선택
가버나움
첫번째 기적
가나
갈릴리 바다
갈 릴 리
거라사
막달라
나사렛
다볼산
가다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자기 제자로 삼음
요한이 애논에서 세례를 베풂
애논
살렘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마4:12)
사마리아
수가성
그리심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사 마 리 아
베 레 아
요 단 강
유 대 광 야
시험산
여리고
세례를 받음
벧아라바
유대 광야에서 금식후 시험받음
성전 꼭대기 환상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한이 처형됨
사 해
마케루스
공생애 준비
공생애 초기 사역

3. 예수님 사역 (시대순으로 정리)

가. 첫 유월절 이전까지

1)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마 3:13~17, 막1L9~11, 눅3:21~22)
2) 유대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심(마4:1~11, 막1:12~13, 눅 4:1~13)
3)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다섯 제자를 만나심(요1:19~51)
4) 가나 혼인잔치(요2:1~11)
5)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계심(요 2:12)

나. 첫유월절~ 두번째 유월절까지(공생애 1년째)

1) 공생애 1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 성전을 성결케 하신 사건(요 2:13~25) (4월 중순)
   -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하심(요 2:23)
   - 니고데모의 방문(요3:1~21)
   - 세례요한의 붙잡힘(눅3:19-

20)

- 예루살렘을 떠나심(요4:3)
-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요4:4~42)
- 다시 갈릴리로 가심(눅4:14-15, 요4:43-45)

2) 공생애 1년: 갈릴리에서의 사역

-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심(마13:53~58, 막 6:1~6, 눅4:16~30)

-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심(마4:13-17, 막1:21-22)-이때부터 "회개,천국복음을 전파하심"
- 어획의 기적을 베푸심(눅5:4-9)
  네명의 제자를 부르심(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막1:16-20)
-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본격적 갈릴리 복음 전파사역을 시작하심(눅5:1~11, 마4:18~22, 막1:16~20)
- 갈릴리 1차 순회전도(막1:38-39)
- 회당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쫓아내심(막1:23-28)
- 왕의 신하를 고치심(마8:5~13, 눅7:1~10, 요4:43,45)
-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막1:29~39)
- 그 후에 마태를 부르심(눅

5:27~32)

다. 두번째 유월절 ~ 세번째 유월절까지(공생애 2년째)

1) 여기부터 공생애 2년: 예루살렘 사역 (2년 봄)

- 베데스다 연못 옆 38년간 병든 사람을 고치심(요5:1~8)

2) 여기부터 공생애 2년: 갈릴리 사역 (2년 가을)
   - 제자들을 확정하셔서 임명하심(마10:1~4, 막3:13~19, 눅6:12~16)(공생애 2년 갈릴리)
   - 그리고는 산상수훈을 베푸심(마5:1~ 7장까지)(2년 중엽)
   -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심(눅7:2~17)(2년 중엽)
   - 세례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눅7:18~30)(2년 중엽)
   - 옥합을 깨뜨린 여인(눅7:36~50)(베다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임)
   - 귀신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마12:22~37)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함(마12:38~45)
   - 바다를 잔잔케 하심,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 고치심(마 8:23~34)

-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회당장 야이로 딸 살리심(눅8:40~56) (2년말기)

라. <u>세번째 유월절~ 네번째 유월절(공생애 3년째)</u>

1) 공생애 3년: 갈릴리에서의 사역(3년 가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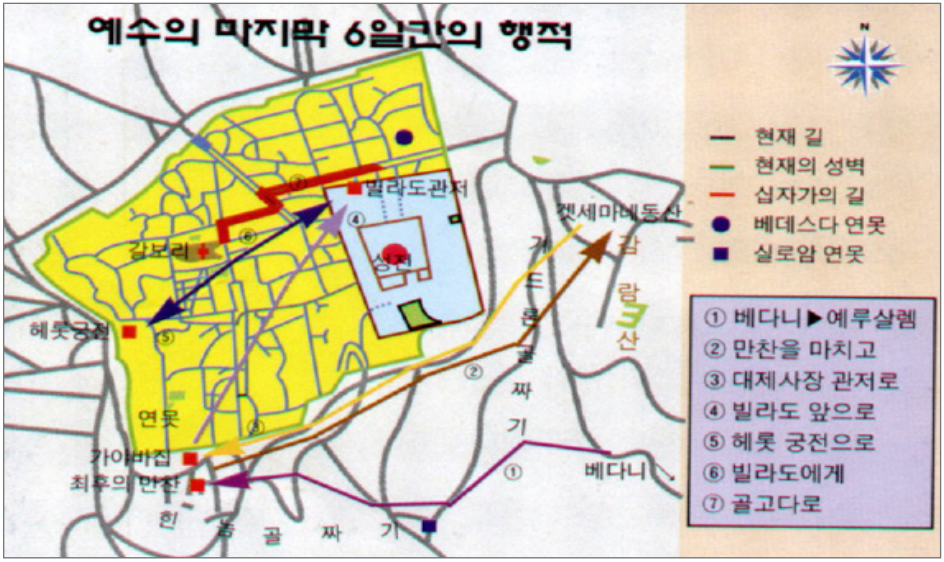
- 오병이어사건(요6:1~15(3년 4월초)
- 바다 위를 걸으심(마 14:22~34)
-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막 7:24~30)
- 4000명을 먹이심(마 15:9~39)
- 변화산 사건(눅9:28) (3년 9월 경)
- 산 아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한 귀신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심(막9:14~29)
-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간의 싸움이 일어남(막 9:33~35)
- 갈릴리로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제자훈련 시키심(마 18:1~4, 12~14, 21~35, 요 1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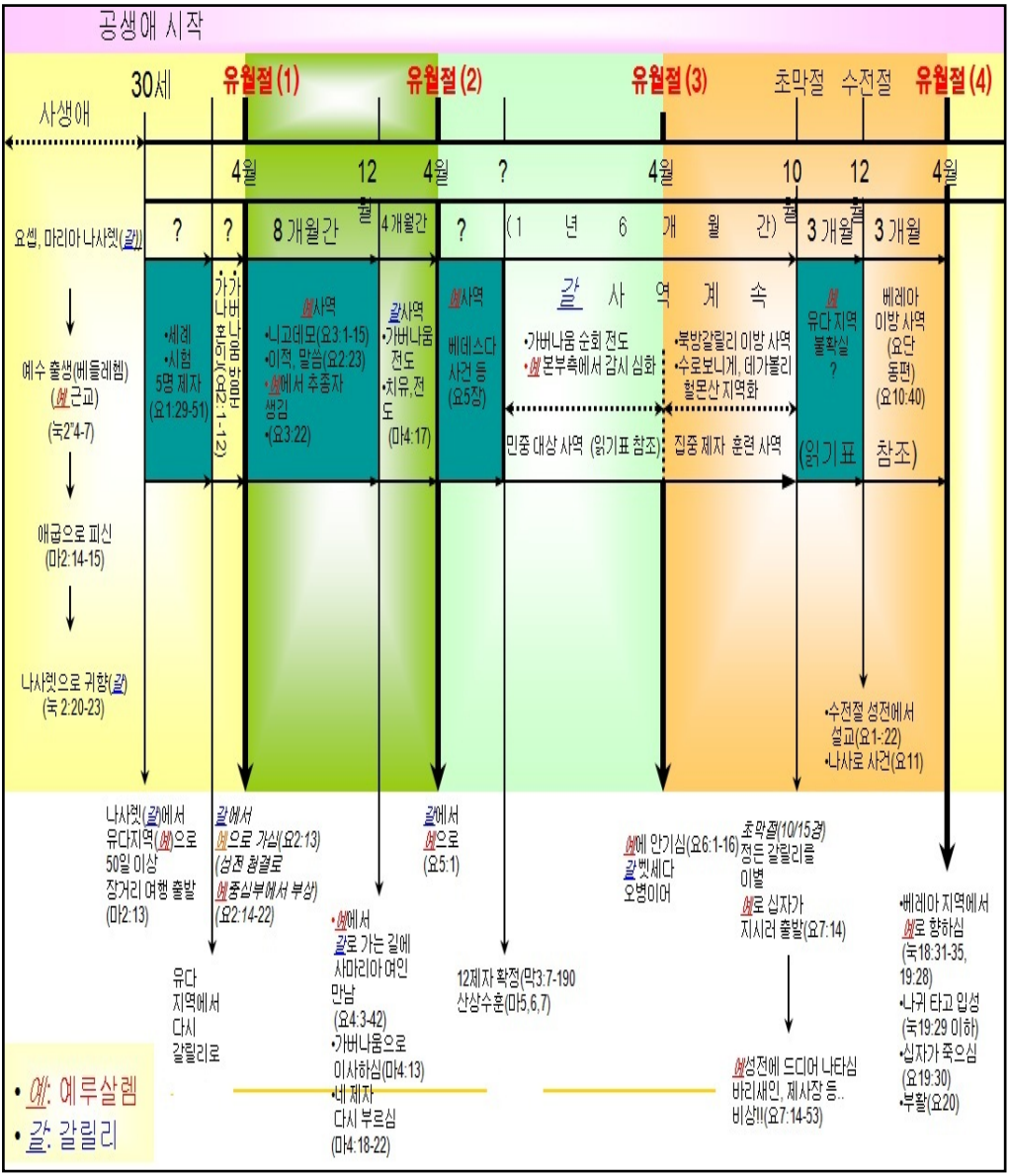
2) 공생애 3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3년 가을 경)

- 가는 길에 제자 되고 싶어 하는 세 사람을 만남(눅 9:57~62)
- 70명 전도단을 둘씩 짝 지워 베레아 지방에 파송하심(눅 10:1~12)
- 초막절 중간과 끝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심(요 7:14~8장)
- 마리아와 마르다(눅 10:38~42)
-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심(요9:1~4) (3년 11월 말~12월 25일 사이)
- 수전절,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 설교하심(요10:1~30) (3년 12/25)
- 나사로를 살리심(요11;1~27)
- 베레아에서 마지막 3개월
-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심(눅19:1~10)

마.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

1)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부음(요 12:1~8) (유월절 6일 전 토요일)
2) 나귀타고 예루살렘 입성(눅 19:29~48) (일요일)
3) 두 번째 성전숙청(막11:11~19)/무화과 저주(마21:18~22) (월요일)
4) 종교지도자들의 마지막 질문공세, 예수님의 답변, 감람산 강해설교 (마21:12~25장)(화요일)
5) 유월절만찬/ 잡히심/ 철야심문/베드로 배반(마26:17~75) (목요일)
6) 빌라도 재판, 십자가에 죽으심(마27:1~66, 요18~19장)(금요일)
7) 부활하심(요20장)




공생애 시작
30세
유월절 (1)
유월절 (2)
유월절 (3)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4)
사생애
4월
12월
4월
?
4월
10월
12월
4월
요셉, 마리아 나사렛(갈)
?
?
8 개월간
4 개월간
?
(1 년 6 개 월 간)
3 개월
3 개월
•세례
•시험
5명 제자
(요1:29-51)
•가버나움 방문
(요2:1-12)
베사역
•니고데모(요3:1-15)
•이적, 말씀(요2:23)
•베에서 추종자 생김
•(요3:22)
갈사역
•가버나움 전도
•치유,전도
(마4:17)
베사역
베데스다 사건 등
(요5장)
갈 사 역 계 속
•가버나움 순회 전도
•베 본부축에서 갑시 심화
•북방갈릴리 이방 사역
•수로보니게, 데가볼리 헐몬산 지역화
베
유다 지역 불확실
?
베레아 이방 사역
(요단 동편)
(요10:40)
예수 출생(베들레헴)
(베 근교)
(눅2'4-7)
애굽으로 피신
(마2:14-15)
나사렛으로 귀향(갈)
(눅 2:20-23)
민중 대상 사역 (읽기표 참조)
집중 제자 훈련 사역
(읽기표 참조)
•수전절 성전에서 설교(요1-22)
•나사로 사건(요11)
나사렛(갈)에서 유다지역(베)으로 50일 이상 장거리 여행 출발 (마2:13)
갈에서 베으로 가심(요2:13) (성전 환결로 베중심부에서 부상) (요2:14-22)
갈에서 베으로 (요5:1)
베에 안기심(요6:1-16) 갈벳세다 오병이어
초막절(10/15경) 정든 갈릴리를 이별
베로 십자가 지시러 출발(요7:14)
•베레아 지역에서 베로 향하심 (눅18:31-35, 19:28)
•나귀 타고 입성 (눅19:29 이하)
•십자가 죽으심 (요19:30)
•부활(요20)
유다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로
•베에서 갈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 만남 (요4:3-42)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심(마4:13)
•네 제자 다시 부르심 (마4:18-22)
12제자 확정(막3:7-190 산상수훈(마5,6,7)
베성전에 드디어 나타심 바리새인, 제사장 등.. 비상!!(요7:14-53)
• 예: 예루살렘
• 갈: 갈릴리

3 장

/

성령 시대

제 3 장 성령시대

1. 교회의 확산

가. 교회(church)는 히브리어 큐리아코스 ('주에게 속하는'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영역본 신약에서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자유로운 도시국가에서 정규적으로 모이는 전체적인 시민회의를 가리키는 말로 '불러낸다'는 뜻을 가졌다.

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란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마 16:18). 예수의 부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강림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

다. 그후 바울에 의해 소아시아와 마케도냐와 로마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교회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교회가 세워졌다. 특히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교회에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인 루디아를 개종시켰고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일로 감옥에 갇혔으나 그 일로 인해 간수장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 사도행전

지리적 영역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장 구분	1~7장	8~12장	13~28장
중심 인물	베드로	빌립	바울
대상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교회의 발전	확립	확산	확장
핵심 단어	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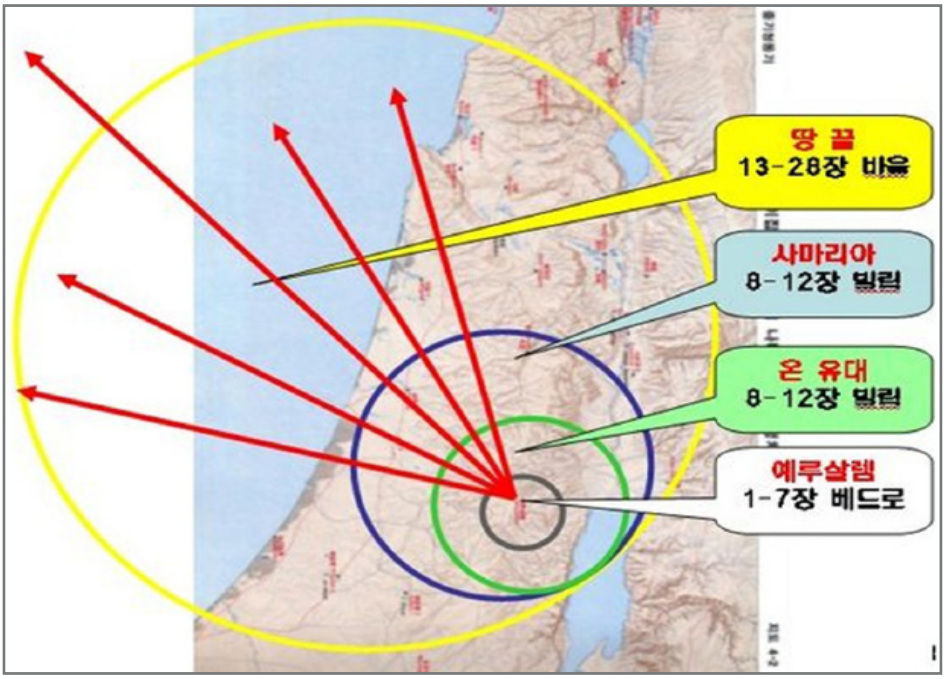
가. 배경 :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가 로마로 번져나간 사실이다.

나. 저자 :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다. 그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인물인 데오빌로 에게 보내었다(누가1:1-4, 행1:1-2). 누가는 바울이 전도여행 할 때 동반자 였다(행 16:10-18).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골 4:14)이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술어가 사용되어 있다. 누가는 아마 63년경 로마에서 기록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눅 1: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눅 1: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눅 1: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눅 1:4]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행 1: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 1:2]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골 4:14]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내용과 주요 사상:

1) 사도행전의 요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하신 말씀이다.

2)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1장~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사요, 행13장~28장까지는 바울의 활동사이다. 첫 복음의 청중은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이었으나 행10장~12장에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기 시작했다. 행13장부터는 복음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3)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증거가 있었음으로 해서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된 복음운동이 불과 3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까지 이르는 놀라운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4) 초대교인들이 증거한 중심 복음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은 바울을 회개시킨 진리 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절대로 소홀히 할수없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초대교인들의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라. 내용 분해(대분류)에 따른 개론

1)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 사도들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 되었다.베드로가 성령의 힘으로 설교할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천 명이나 되었다(행 2:41).
- 일곱집사중 한사람인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2)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 그 때에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복음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증거되어 이방인 에게도 전파되었다.
- 또한 복음은 멀리 다메섹에도 들어갔는데 이들을 체포하러 그곳에 가던 사울이 도중 부활

[행 2: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하여 박해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순교자 바울이 되었다.그후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때에 비로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행 11:26).

[행 11: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음을 받게 되었더라

3)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최초의 선교사가 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로 구브로 섬으로 떠났다.거기서 지중해를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 왔다.
- 제2차 여행을 떠난 바울은 육로로 갈라디아를 순회하고 구라파 지경으로 들어섰다.
- 빌립보,아덴,고린도 등지에서 전도하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바

울은 다시 육로로 제3차 여행을 떠났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러 있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왔다.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 천부장에게 구출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미결수로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여 로마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다.로마에 도착 바울은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셋방에서 자유롭게 서신을 기록 하여 밖으로 내어 보내고 복음을 전하였다.

초점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승리		과도기		여행			시련		
구분	교회의 탄생	시련을 통한 교회성장	교회의 흩어짐	교회가 이방인을 허락함	1 차교회 확장(바울 선교)	2 차 교회확장	제 3 차 교회확장	바울 체포	바울의 세번재판	바울의 로마 여행
본문	1-4 장	5-7 장	8-9 장	10-12 장	12-15 장	16-18 장	19-20 장	21-23 장	24-26 장	27-28 장
주제	교회설립)		교회분산		교회확장					
장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시간	4 년(A.D 30-33)		13 년(A.D 33-46)		14 년(A.D 46-61)					

3. 바울에 대하여

가. 바울의 혈통

1) 바울의 고향은 다소이다(행 21:39, 행 22:3).
2)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행 22:27-28).
3)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빌 3:5).
4) 바울은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다(21:40-22:2, 행 21:37).

나. 바울의 열심

1) 바울은 율법에 열심인 자였다(행 22:3)
2) 바울은 유대교을 열심히 섬겼다(갈 1:14)

다. 바울의 교회 핍박

1)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였다(빌 3:6, 행 26:10-12).
2) 바울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행 21:39]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행 22: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행 22: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행 22: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빌 3:5]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행 21:37]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행 22: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갈 1: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핍박하러 갔다(행 9:3).

라. 바울의 회심

1)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다(행 9:3-5).
2)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고 시력이 회복되었다(행 9:17-18).
3) 다메섹에서 복음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다(행 9:20).
4) 죽이려는 유대인을 피해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보냈다(갈 1:16-19).
5)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갈 1:17)
6)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교제하게 했다(행 9:26-27).

마. 바나바와의 만남

1) 예루살렘에 거할 때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갔다(행 9:28-30).
2) 바울은 개인적으로 수리아와 길리

[빌 3: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행 9: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행 9: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행 9: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행 9: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행 9: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갈 1: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행 9: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행 9: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그때의 그의 나이가 43세쯤 되었다. 아라비아 생활 후 35세때부터 근 8년간 복음을 전한 것이다).

3)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다(행 11:24-25).

[행 9: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행 9: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행 9: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행 11: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행 11: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4. 바울의 1차 전도여행(행 13:1 ~ 14:28)

가. 바울은 안디옥에서 교사로 있다가 안수를 받고 선교파송을 받았다(행 13:1-3).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다.

나. 구브로 섬 전도(행 11:19):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행 13:9) --〉 로마 총독(서기오 바울)을 전도함(행 13:7) --〉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소경되게 함 -〉 바보에서 버가에 이를 때 마가 요한이 전도대열에서 떠남(행 13:13).

다. 비시디아 지역 전도: 마가가 떠난 후에 전도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행 13:43, 행 13:48).

라. 갈라디아 지역 전도: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를 전했다(행 14:3) --〉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낫게 했다(행

[행 13: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행 13: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행 13: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행 11:9] 또 하늘로부터 두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행 13: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행 13: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행 13:43]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행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4: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행 14:9]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4:8-10).이 일로 인해 바나바는 쓰스(제우스)로 바울은 허메(헤르메스)로 불릴 정도로 추대를 받았다(행 14:15). 하지만 이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뻔했다(행 14:19). --〉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만들었다(행 14:20-21).

마. 안디옥으로 돌아옴: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각 지역에 세운 제자들을 격려하고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워놓았다)(행 14:23).

[행 14:10]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행 14:15]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행 14: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행 14:20]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행 14: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5. 바울의 2차 전도여행(행 15:2 ~ 18:22)

가. 1차 전도여행 후 할례문제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후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남.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다(행 15:36).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리스지역(마게도냐, 아가야)으로 가게 하셨다(행 16:6-9).

나. 바나바와 헤어짐: 마가요한이 1차 전도여행때 전도팀에서 떠나게 된 일로 인해 바울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음으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남(행 15:37-40).

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전도: 바울이 아라비아 거주 3년 후부터 8~10년간 전도한 지역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행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행 15: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행 16: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행 16: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행 16: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 갔는데
[행 16: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5: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행 15: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행 15: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행 15: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행 15: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행 15: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다녀옴(행 15:40-41).

라. 루스드라 전도: 이곳에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킴(행 16:1-3) --〉 여러 성을 돌면서 규례(행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사항)를 전하였다.

[행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행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행 16: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마.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행 16:7). --〉 하지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다(행 16:7)

[행 16: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 드로아에서 성령님의 명령 받음: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다(행 16:8-10). --〉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다.(행 16:8-10).

[행 16: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 갔는데
[행 16: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1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 마게도냐에서의 전도: 빌립보에 도착하여 루디아와 그 가족을 전도함(행 16:12-15) --〉 바울에 의해 점치는 여

[행 16: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인에 의한 수입이 없어지자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처함(행 16:16-24) --〉 간수가족에게 세례를 베품(행 16:25-26)

아.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이동함(행 17:1) --〉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침(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서 가르침)(행 17:1-2) --〉 야손의 집에 잠시(3주 정도) 머물렀을 때 시기하는 유대인이 또 나타났다(루스드라에서 나타난 것처럼)(행 17:4-6). --〉 그래서 급히 바울은 베뢰아로 떠났다.

자. 베뢰아에서의 전도: 베뢰아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행 17:11-12) --〉 하지만 이곳에서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기에 바울은 아덴으로 떠남(다른 동역자(실로, 디모데)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음(행 17:13-15)

[행 16: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행 16:14]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행 16:15]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행 16: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 17:1]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행 17:4]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행 17: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행 17:6]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행 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

차. 아덴에서의 전도: 전도팀이 함께 모였다. --〉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함(행 17:22) --〉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다(살전 3:1-2).

카. 고린도에서의 전도: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름(행 18:1) --〉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행 18:2-3). --〉 이곳에서 1년 6개월 지내면서 장막업을 함께 함(행 18:11).

타. 안디옥으로 돌아감: 겐그레아에 가서 서원했던 것대로 머리를 깎는다(행 18:18)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행 18:19) --〉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행 18:22).

6. 바울의 3차 전도여행(행 18:23 ~ 21:17)

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행 17: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살전 3: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살전 3: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행 18:11] 일 년 육 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행 18:18]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행 18:19]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행 18:22]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 에베소 사역: 안디옥을 떠남 --〉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의 형제를 굳건히 함(행 18:23) --〉 에베소에 가서 그곳 서원에서 3년간 가르침(행 19:1-20 --〉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을 안수하여 성령세례를 받게 함(행 19:1-7). --〉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사름(은 오만의 책)(행 19:19) --〉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한 소송사건이 일어남(행 19:23-41) --〉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감

[행 18: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행 19: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나. 마게도냐 지역 사역: 메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무름

[행 20: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다. 드로아에서 유드고 살림: 빌립보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7일간 강론함(행 20:6) --〉 유드고가 설교 듣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음 --〉 바울이 다시 살림(행 20:7-10). --〉 앗소 --〉 미둘레네 --〉 기오 앞 --〉 사모

[행 20: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행 20:8]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행 20: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행 20: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

--〉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남 (행 20:16-18)

라. 예루살렘 귀환: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함(행 21:3) --〉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모두들 말하였으나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감 (행 21:8-13).

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행 20: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행 20: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행 20:18]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7. 바울의 로마 행(행 27:1~28:31)

가.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를 당함.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AD57-59년 사이이다(행 21:27-30) --〉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심(행 23:11).

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생겼다(행 23:12-14) --〉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회로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 음모가 있었으나 바울의 생질에 의해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됨(행 23:15-21) --〉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되었고 헤롯궁에 갇히게 됨(행 23:31-35)

다. 가이사랴에서의 심문: 벨릭스 총독에게 심문을 당한다(행 24:1) --〉 벨릭스는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 처리하겠다고 판결을 유보한다(행

[행 23: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행 23: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행 23: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행 23: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행 23: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행 23: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행 23: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행 23: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행 23:19]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행 23: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

24:22) --〉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의 강론을 들었으며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행 24:24-26).

라. 2년간 감옥에 구류됨: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간 구류함(행 24:27)

마. 베스도의 심문: 벨릭스 후임자인 베스도가 다시 바울을 심문함(행 25:1-2) --〉 바울은 로마에 가서 심문을 받겠다며 가이샤 앞으로 상소하였다(행 25:11)

바. 헤롯 아그립바 왕의 심문: 베스도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인사차 방문했던 헤롯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무죄라고 선언한다(행 26:31).

사. 바울의 로마 압송: 압송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다(행 27:1-28:15) --〉 로마에 도착하였고 셋집에 구금되었다(행 28:16) --〉 하지만 그곳에서 찾아오는

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행 23:21]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행 24: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행 24:27]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행 25: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삽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행 26: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행 28: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행 28:31]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람들에게 2년동안 복음을 전하였다 (행 28:31)

아. 바울의 순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68년 이전 로마에서 참수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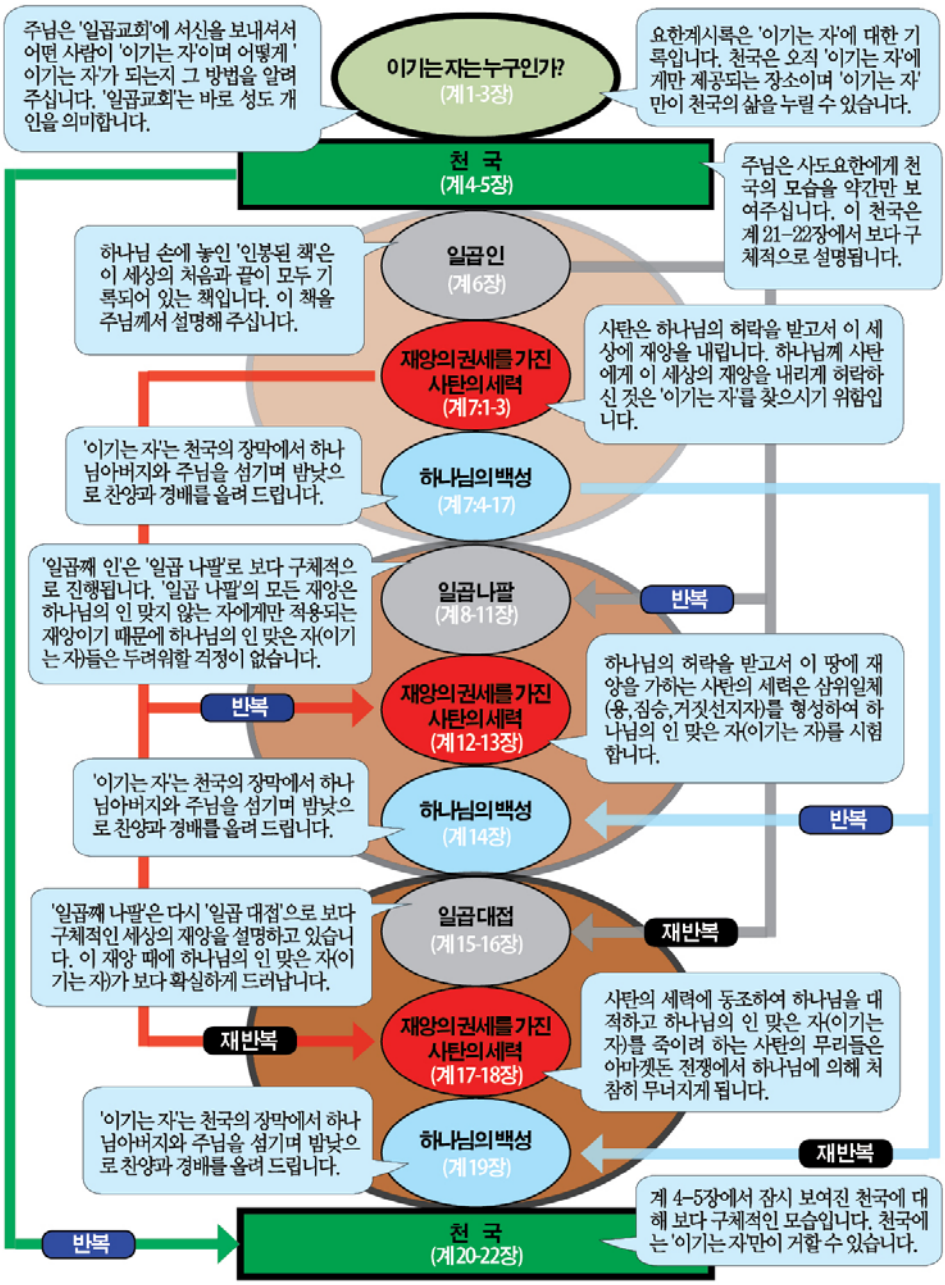
4 장

/

천국
시대

요한계시록의 구조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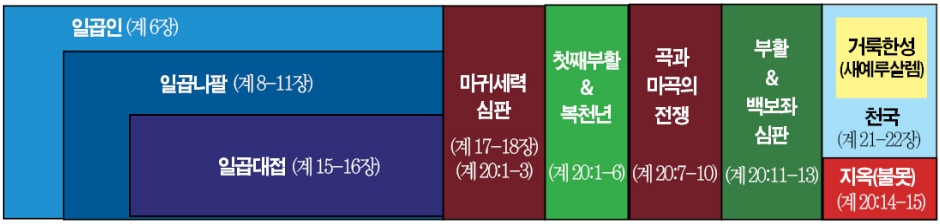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

워킹위드바이블(www.WalkingWithBible.com)

교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왜 저들을 책망하셨나?	주님께서 이편 경고를 하셨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에베소교회 (계 2:1-7)	오른손에 일곱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시 나는 분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버린 것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계 2:8-11)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없음	없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사망을 면하게 되리라
버가모교회 (계 2:12-17)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사단의 방해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두아디라교회 (계 2:18-29)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권세를 주리라
사데교회 (계 3:1-6)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분	저들 중 몇 명은 흰 옷을 입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복음을 받아드렸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교회 (계 3:7-13)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	없음	끝까지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교회 (계3:14-22)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없음	저들의 행위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것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입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으로 통치하리라

요한계시록 사건별 설명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인봉된 책	첫째 인		흰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이 없어지고 점점 사탄의 활동에 의해 더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계6:2).
	둘째 인		붉은 말. 세상을 전쟁으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계6:3-4).
	셋째 인		검은 말, 경제적인 공황으로 더욱 세상을 어렵게 만들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계 6:5-6).
	넷째 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고 강력해짐으로써 세상의 25%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계 6:7-8).
	다섯째 인		사탄으로 핍박 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계 6:9-11).
	여섯째 인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계 6:12-17).
	사탄의세력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계 7:1-3).
	인맞은백성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 (계 7장).
일곱째인이 떼어질때 일곱나팔이 울려퍼진다	첫째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세상의 1/3을 태워버린다(계 8:7).
	둘째나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피로 만들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의 1/3이 죽고 부서진다(계 8:8-9).
	셋째나팔		횃불같은 큰 별(쑥이라고 불리움)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1/3의 물이 쓰게 된다(계 8:10-11).
	넷째나팔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 져서 낮의 1/3이 빛을 잃는다(계 8:12).
	다섯째나팔		무저갱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지고, 황충들이 다섯달동안 사람들을 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계 9:1-12).
	여섯째나팔		네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인류의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계 9:13-21).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중에서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계 11:1-14).
	사탄의세력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한다(계 12-13장).
	인맞은 백성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4,000명이 시온산(거룩한성)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계 14장).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일곱대접이 부어진다		첫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역병이 생기는 재앙이다(계 16:1-2).
		둘째 대접	대접이 바다(지중해)에 쏟아지니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계 16:3).
		셋째 대접	강들과 물은 피로 변했다.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먹도록 했다(계 16:4-7).
		넷째 대접	대접이 해에게 떨어지는데,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계 16:8-9).
		다섯째 대접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자 저들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훼방하고 회개치 않는다(계 16:10-11).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계 16:12-16).
		일곱째 대접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번개, 뇌성, 지진, 우박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키신다(계 16:17-21).
		사탄의세력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사탄의 무리(사탄, 짐승, 거짓선지자)가 붙잡힘을 받아 유황불못에 떨어진다(계 14:14-30, 계 17장, 계 19:11-21). 주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가둬둡니다(계 20:1-3).
		인맞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한다(계 19장).
첫째부활과복천년			주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천년) 복천년이 이뤄진다(계 20:4-6).
곡과마곡의 전쟁			복천년이 끝날때 잠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은 백성을 미혹하며 '곡과 마곡'간의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계 20:7-10).
부활과 심판			모든 사람, 사탄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0:11-15).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땅(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성이 내려온다(계 21:1-2). 거룩한성은 12진주문이 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명수강이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다(계 21-22장). 거룩한성에는 성전이 없으나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서 천국백성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계 21:3-4).

지구종말 징조(순서별 설명)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첫째인 (계6장)	둘째인 (계 6장)	셋째인 (계 6장)	넷째인 (계 6장)	다섯째인 (계 6장)	여섯째인 (계 6장)	일곱째인 (계 6장)

* 일곱인/일곱나팔/일곱대접은 지구종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일곱인 —〉 일곱나팔 —〉 일곱대접 순서대로 재앙이 일어난다.
* 일곱번째 인에서 일곱개의 나팔이 펼쳐지고, 일곱번째 나팔에서 일곱개의 대접이 펼쳐지는 식으로 전개된다.
* 하나님께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사방에서 몰려온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계 7장),

첫째나팔 (계8장)	둘째나팔 (계 8장)	셋째나팔 (계8장)	넷째나팔 (계8장)	다섯째나팔 (계 9장)	여섯째나팔 (계9장)	일곱째나팔 (계 10장)

*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계 12장)
* 여섯째인 후에 인맞은 14,400명과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 7장),
  또 다시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택함받은 14,400명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계 14장)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반복된다.

* 바벨론의 멸망(계 18장), 짐승의 멸망(계 19장), 사탄의 멸망(계 20장)
*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선지자가 멸망을 당한 후에 복천년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첫째부활에 참예한다(계 20:4-6)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고전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동안 복천년이 이뤄진다. 복천년이 끝날때 잠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은 백성을 미혹하며 "곡과 마곡"간의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원히 물못에 떨어지게 된다(계 20장)
*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 사탄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계 20장)
* 새하늘과 새땅(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성이 내려온다(계 21:1,10)
* 거룩한성은 12진주문이 있고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명수강이 흐르며 생명나무가 있다(계 21-22장)
* 거룩한성에는 성전이 없으나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서 천국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계 21:3)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과의 관계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일곱번째인에서 일곱개의 나팔이 나오고, 일곱번째 나팔에서 일곱대접이 나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인보다 일곱나팔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곱나팔보다 일곱대접이 더욱 구체적이다.

일곱인

첫째인

흰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깨끗한 세상이 없어지고 점점 사탄의 활동에 의해 더러워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계6:2)

둘째인

붉은 말. 세상을 전쟁으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려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계6:3-4)

셋째인

검은 말. 경제적인 공황으로 더욱 세상을 어렵게 만들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계6:5-6)

넷째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지고 강력해짐으로써 세상의 25%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계 6:7-8)

다섯째인

사탄의 활동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계 6:9-11)

여섯째인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며,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계 6:12-17)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계 7:1-3)

인맞은 사람(14,4000명)과 천국백성이 주님을 경배한다. (계 7장)

일곱째인

일곱째인에서 일곱나팔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본다. 일곱째인은 곧 일곱개의 나팔을 의미한다.(계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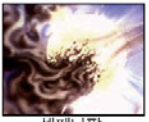
일곱나팔

첫째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세상의 1/3을 태워버린다.(계 8:7)

둘째나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피로 만들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의 1/3이 죽고 부서진다.(계 8:8-9)



셋째나팔

횃불같은 큰 별(쑥이라고 불리움)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1/3의 물이 쓰게 된다.(계 8:10-11)

넷째나팔

해,달,별의 1/3이 어두워 져서 낮의 1/3이 빛을 잃는다.(계 8:12)

다섯째나팔

무저갱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지고, 황충들이 다섯달동안 사람들을 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계 9:1-12)

여섯째나팔

네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인류의 1/3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계 9:13-21)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도 고난을 받는다.(계 11:1-14)

사탄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한다.(계 12-13장)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4,000명이 시온산(거룩한성)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계 14장)

일곱째나팔

일곱째나팔에서 일곱대접으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본다. 일곱째나팔은 곧 일곱대접을 의미한다.(계11장)

일곱대접

첫째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병이 생기는 재앙이다.(계 16:1-2)

둘째대접

대접이 바다(지중해)에 쏟아지니 바닷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는다.(계 16:3)

셋째대접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아 졌을때 물은 피로 변했다.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를 먹도록 했다.(계 16:4-7)

넷째대접

대접이 해에게 떨어지는데, 해가 강한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계 16:8-9)

다섯째대접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자 저들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훼방하고 회개치 않는다.(계 16:10-11)

여섯째대접

유브라데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계 16:12-16)

일곱째대접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번개, 뇌성, 지진, 우박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키신다. (계 16:17-21)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만다.(계 17-18장)

복천년 후에 부활,심판이 있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된다.(계 19-22장)

신약개론반 교재

초판발행 2018. 6. 10
지 은 이 데이빗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을 위한

국제신학교
www.WSLseminary.org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본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투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